

# 새벽 물놀이 안전요원 중태... 복무기강 '비상'

### 20대 민간 안전요원 해수욕장서 음주 다이빙 중 사고 심정지 상태로 구조... 자발 순환 회복돼 병원 치료 중 제주시 "안전요원 교육... 퇴근 후 복무관리 한계" 호소

새벽시간대 도내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2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A씨는 해당 해수욕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 요원 신분인 것으로 알려져 지자체 복무기강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25분쯤 제주 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A씨가 익수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병원 치료를 받고 자발순환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 도내 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했다. 제주 시내 모든 안전요원 자격심사 및 선발은 행정사에서 직접 하고 있으며, 관리는 해당 해수욕장의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24일 조기 개장한 함덕해수욕장에는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안전요원 16명이 투입되고 있다.

사고를 당한 A씨는 해당 안전요원 중 한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와 해경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전 인근에서 동료 안전

요원 등을 포함한 지인 8명 내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해수욕장 내 한 바위에서 다이빙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는 해수욕장 개장 외 시간이라 A씨를 비롯한 동료들의 근무시간은 아니었다.

그러나 물놀이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는 요원이 입수가 금지된 새벽녘에 음주 상태로 물놀이를 즐겼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안전요원 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퇴근 후 안전요원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과 함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매일 근무에 투입되기 전 안전요원들을 대상으로 안

전수적 준수 및 복무행태에 대한 당부하고 있지만, 근무시간 외에는 이들도 민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행태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인 만큼 물놀이객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안전요원들을 대상으로 퇴근 후 복무관리 등 관련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놀이는 24시간 내내 이뤄지고 있지만, 해수욕장 개장시간이 끝나면 안전요원, 상황실 직원 등이 퇴근해 안전관리 인력이 없다"면서 "오후 10시까지만이라도 교대식으로 순찰인력 투입이 필요하다. 해당 사안을 도에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채현기자

### 제주해녀박물관 찾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 6월 말 기준 1만2000여명... 전년 동기보다 갑절 늘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제주해녀 문화를 느껴보기 위해 제주해녀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제주해녀박물관 총 방문객 수는 5만 77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6739명보다 2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방문객의 폭증이 눈에 띈다. 올해 방문객 중 외국인 1만 2027명으로 전체의 2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787명보다 107.8%나 늘어난 수치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376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만 2349명, 싱가포르 1301명, 중국 1274명, 말레이시아 215명 순이었다.

이처럼 외국인 관람객이 급증한 것은 제주와 동남아와 중국 등을 연결하는 해외 직항 노선이 증가하

고 제주 기항이 크게 늘어난 크루즈 관광객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함께 세계 각국 한국문화원과 협업을 통해 현지 해녀 공연과 전시 등의 다양한 홍보 활동도 도움을 줬다.

국내 관람객도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어린이 및 청소년 단체 관람객이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 4만 952명 대비 11.6% 증가한 4만 5706명이 제주해녀박물관을 찾았다.

제주자치도 정재철 해양수산국장은 "해녀박물관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해녀문화의 가치와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 외국인 콘텐츠 보강과 전시 개선, 국내외 홍보활동 강화로 해녀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 청소년 창업 캠프 프로그램 서귀포시, 중학생 모집 운영

서귀포시는 오는 8월 17일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우주 산업과 모의 창업 등을 내용으로 '미래 CEO'를 양성하는 '2024년 청소년 창업 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에서는 우주 산업과 관련된 아이템을 구상하고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어 기업명·핵심 사업·주요 아이템 등 기업 만들기, 기업 아이템 설계와 제작, 홍보·판매 등 모의 기업 활동이 이뤄진다.

참가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중학생으로 이달 17일부터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청소년 창업 캠프는 학생들이 직접 회사의 대표 또는 기업가가 되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아이디어를 기획·설계하는 등 창업 과정을 경험하며 진로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독자 제보 750-2232



흰뺨검둥오리 가족의 날들이 15일 제주 시 조천읍 해안가 습지에서 흰뺨검둥오리 가족이 날들을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 여관·여인숙 거주 등 주거 취약계층 조사 일도2동, 8월 말까지 지역 내 79가구 대상 진행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여관, 여인숙 거주자 등 관내 79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취약계층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공요금 체납, 고용 위기 등 위기 정보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확인

되는 대상자만이 아니라 일도2동에서 마련한 자체 위기 가구 발굴 계획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전용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들도 파악해 주거 상황 지원 사업, 제주자치 통합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보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다. 일도2동에서는 이 기간에 전화 상담, 가정 방문을 통해 위기 가구 발굴에 나선다.

한지연 일도2동장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구를 찾아내고, 이들에게 맞춤형 보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 도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해 추진해야"

#### 17일 도의회 심사 앞두고 도내 교육단체 공동 성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도내 교육단체가 부결을 촉구했다. 교육단체들은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은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에 맞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좋은교사운동,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대안교육협의회,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 도내 7개 교육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연구용역 최종발표에서 조직개편안 발표까지 열흘이 채 걸리지 않았으며, 발표와 동시에 의견수렴이나 토론 및 검증 없이 바로 입법예고에 돌입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용역 결과와 조직개편안의 내용이 달라지는 과정에서도 공식적인 절차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번 정부부교육감 신설 배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을 위한 대의 협력인가의 질문에서, 그 무엇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는 독자적인 교육자치 시스템의 구상이 결여돼 있다"면서 "제주만의 독자적인 교육자치 시스템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를 강화하는 행정체제개편 과정에서, 각 권역별로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장과 권역별 의회가 주도해서 공모 과정을 거쳐 선출하는 부교육감이 협치하는 모델도 구상할 수 있다"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늦어도 향후 1년 이내 결론이 날 것이다. 선부른 이번 결정으로 인해 향후 행정체제 개편 이후 이 논의가 본격화될 때 도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다혜기자



# 취 축 임

CONGRATULATIONS

## 육군 제1사단장

육군 제1사단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양 진 혁**

부 : 양정보(본회 10대 회장·고문) · 모 : 서인순



**사단법인 해병대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강대성**  
**제주시지회 회장 강영호 외 회원 일동**  
**서귀포시지회 회장 부영인**